

◆ '09년에는 인력사업을 통합조정하고 추진절차 개선모델을 구축, 확산하였으며, 산학협력 활성화와 공학교육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한 기반 마련

* 산학협력중심대학 17개, 산학협력중심전문대학 15개, 공학교육센터 60개 등

◆ 인력사업의 추진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면서 종합성과분석을 토대로 한 전주기 관리체계를 구축하고, 창의적·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한 정책지원 강화

- 창의성 제고를 위한 기술교재 확대 개발
- 미래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인력사업(로봇인력양성 등) 추진
- 융합교육 프로그램(공학+경영 등)을 개발하고 확산

가. 기술변화와 현장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사업 강화

□ 인력사업 통합재편의 지속적·안정적 추진

○ '09년에 마련한 '인력사업 통합관리 방안'의 후속 조치로써, 6개 유형별 사업의 세부추진계획 수립·운영

* 6개 유형: ①미래기초인력역량개발(학부) ②연구개발고급인력지원(석·박사)
③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(재직인력) ④기업공급·활용지원 ⑤인력지원기반조성
⑥국제인력교류활성화

○ 인력사업의 추진체계 개선 및 종합성과분석을 통해서 성과기반의 전주기 관리체계 강화

* '10년 상반기에 '09년 인력사업(회계년도 기준)에 대한 성과분석 실시

□ 산업기술인력 양성·공급·활용을 효율적으로 지원

- 미래시장을 주도할 융합형 인재 양성사업의 체계적 추진
 - * 전략기술인력양성, 로봇인력양성, 디자인전문인력양성 등
-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애로를 해소하고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인력 공급과 활용을 지원하는 사업 추진
 - * 중소기업고용지원, 취업알선형 이공계 전문기술 교육·연수 등

나. 대학별 특성화된 산학협력 및 공학교육혁신 활성화

□ 자율적 산학협력 모델 구축 및 평가지표 개발

- 주변 산업생태계 및 대학별 특성을 반영한 창의적·자율적인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대학 고유의 브랜드 모델로 발전
 - * 엔지니어링하우스(산업기술대) 등 산학협력중심대학별 특성화된 프로그램 추진
- 산학협력 구축·운영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여 관리·활용
 - * 대학평가 및 외부사업에 제시하여 활용

□ 공학교육혁신 주체간 협력·교류 활성화

- 60개 공학교육혁신센터간 성과확산을 위해 참여 및 교류 활성화
 - * 공학교육혁신센터간 교류 확대, 센터장 협의회 구성·운영 등
- 창의·융합·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대학간·학과간 융합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확산
 - * 공학교육혁신센터 중 이공계융합교육센터를 운영 중인 대학의 거점기능 강화

다. 연구장비 활용촉진 및 관리의 선진화

□ 장비 공동활용 및 관리체계 개선

- 연구장비의 공동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기획 및 평가 절차 등 마련
 - * 사전 실태조사 강화, 책임자의 이력 점검 등
- 장비 구축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활용촉진 방안을 마련하도록 유도
 - * 경진대회 등 혁신 사례 확산, 종합정보 제공, 협의체 활동 지원 등

□ 연구장비의 통합관리기반 강화

- 중앙장비도입심의위원회 통합 등 연구장비 통합관리기반 구축
 - 사업별로 운영하고 있는 중앙장비도입심의위원회 통합 및 총괄전담기구 설치 검토('10.9)
 - 장비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관련 법 제도 정비
 - * 구축된 장비의 활용에 대한 이력 관리, 장비관리요령 제정 등

라. 창의성 제고 및 片기술문화 확산

- 청소년의 창의성 제고 및 이공계 친밀감 조성을 위한 기술 분야별 기술교재 확대 개발
 - 기술과 디자인, 정보통신기술, 생명공학기술 분야 등 기술교재 개발
 - * '09년 일반개론(기술과 사회·기술과 발명·기술과 직업 등) 개발 완료
- 산업기술관 건립을 위한 예비타당성 연구 추진
 - * 기본방향, 예산, 법제도, 국내외 실태 등 조사·분석
- 산업기술주간을 산업기술인 축제의 장으로 정착
 - * “산업기술의 날” 지정을 위한 조사 및 협의 진행 등